

안녕하세요. 하루 별어 30분 챙겨먹는 거리의 노동자 주동윤입니다.

[주동윤] 칼럼 링크 모음 : <https://orbi.kr/00015766229>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17 6평 <유비논증> 지문을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문부터,

최근 국어 경향이 바뀌면서 수험생들을 혼란으로 빠뜨린 지문까지 다뤄볼 생각입니다. (장문지문은 최대한 나중으로 미뤄볼 생각입니다. 짧은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긴 지문도 이해할 힘이 생기니까요.)

이 ‘사고과정 자료’ 는 먼저 스스로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제 사고과정을 비교해보시면서 교정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를 읽기 전에 최대한 정확하게 반응하시며 읽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읽어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로도 첨부해드렸으니 인쇄하여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이렇게 나눔고딕/볼드체로 되어있는 것은 지문의 문장.**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글을 읽을 때의 생각,

문장을 읽은 후 1. 2. 처럼 숫자로 매긴 것은 제가 기출을 통해 체화한 습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 유비 논증은 /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1. 문장이 정말 길쭉? 긴 호흡이 아직 버거우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길이만큼 끊어 읽으세요. 빨간 슬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끊어 읽은 흔적입니다. 단어-구-절-문장-문단 단계로 차근차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근잘근 씹어가며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짜증내시며 이 문장을 넘긴다면 뒷문장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차분히 읽어봐요.

2. 심지어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추상적인 문장으로 채웠다가는 아마 이해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될 테니까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인 문장의 경우는 시각화, 예시 등등의 방법을 통해 간략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는 지금 욕심 부려서 알려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배워나갑시다.)

## 유비 논증은

[유비논증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유비? 관우? 하하하! 아무래도 낯선 개념일 테니 필자가 뒤에 설명을 해줬군요. 유비논증이 뭘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혹시 알아요? 소개팅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게 될지. 물론 그 뒤로는 당신 주위가 무척 쾌적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추상적이지만 여기서 좀 더 머리를 굴려본다면 ‘예시’를 들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멜루 루카쿠, 라카제트, 모라타 라는 선수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모두 등번호 9번을 달고 있고, 공격수이군요. 근데 여러분 앞에 동팡저우 라는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등번호 9번을 달고 있군요. 여기서 우리는 위의 세 선수의 경험을 토대로 동팡저우 라는 선수가 9번을 달고 있으니 대략적으로나마 공격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경험을 통해 예시를 들어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계속 예시를 들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느새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로 필자에게 공감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경우에는 엘사와 라폰젤, 트와이스와 레드벨벳 등등 여러 가지 써볼까 하다가 생략했습니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대상의 특성을 모르는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이니 그렇겠군! 위 문장을 최대한 이해하셨다면 무리 없이 끄덕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표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문장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주고 있군요. 유비논증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제시해줬으니 구체적인 사례 ‘표유류를 대상으로~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을 얘기할 것 같아요.]

1. 요약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단을 다 읽고 나면 여기서는 이걸 제시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문장이 정말 길죠? 다시 한 번 끊어 읽으세요. 앞 문단에서 예고한대로 ‘구체적인’ 사례인 동물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군요. 이걸로 유비논증에 대해 설명을 할 건가봐요. 유비 논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이겠군요. 이런 식으로 관계와 관계를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동물에게 안전하다고 인간에게도 안전할까?’ 질문하시며 읽으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당연히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분들이겠죠? 위 문장의 재진술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다음 문단에 나올까요? 이 입장에 대한 보충? 아니면 반박?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1. 제가 당연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시면서 읽어야합니다. 문장을 연결하며 입체적으로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부터 신경 쓰시면서 읽어야합니다.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뜬금없이 어떠한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군요. 필자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주려나 봐요. 우선 따라가 봅시다. ‘개연성’이란 단어를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단순히 ‘외우려’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며 정보량을 줄여주세요.]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유사성?’ 우선 유사성이란 단어에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문 내에서 어떤 의미로 ‘유사성’이라 말할지는 모르니까요. 우선 차분하게 어휘 그대로의 의미로 ‘비슷한 것’ 이라고 가정해보고 충분히 고개를 끄덕여 봅시다. 여태까지 한 문장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읽어오셨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성’ 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당연히 설명을 해주겠죠. 평가원에서는 이의제기 역시 받기 위해 그렇게 지문을 써오고 있으니까요.

좀 더 욕심을 내서 예시를 들어보고 넘어가죠. 강아지가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가 있는 점이 사람과 닮았다고 해서 사람이 강아지와 같이 사족보행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이렇게까지 못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

1. 사실 이 문장은 앞에서부터 이해하며 읽지 못하셨다면 실증을 내며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문 안에서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잖아요? ‘개연성’ 이라는 개념과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니... 항상 앞의 내용을 통해 뒤의 내용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입체적으로 글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표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오, 예시를 들어줬네요. 필자가 앞의 문장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해요.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요. 처음에 뭘 말인지 이해가 안가셨다면 다시 천천히 끊어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이해해야하니까요. 제가 끊어서 읽어본 후 제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비논증의 효과를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표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실험대상동물들이 가진 인간들과의 비슷한 점인가봅니다. 뒤에 ‘가령’이 나오니 예시가 나오겠군요.]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제가 생각한 거보다 좀 더 그럴 듯한 예시를 던져주는군요. 인간과 동물이 이러한 점에서 비슷하단 것은,,고개 끄덕이시면서 꼭꼭 씹어 소화하시면 됩니다.]

**실험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만약 추론 근거가 추론 결과와 관련성이 깊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무리 없이 넘어가실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저어기 위에 공격수들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보죠. 루카쿠는 흑인, 모라타는 백인입니다. 근데 두 선수의 인종은 그들의 등번호, 포지션과 큰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요소입니다. 이 문장 또한 총체적으로 읽어오셨다면 무리 없이 고개 끄덕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3문단을 다 읽고 나니, ‘개연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유비 논증을 지지하는 입장, 즉 동물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해주었군요. 방금 다음 문단을 슬쩍 보니 ‘그러나’ 로 시작하더라고요. 반박을 하려나 봐요. 말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던데, 한 번 읽어봅시다.]

(라)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오, '그러나'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박을 하려나 봐요. 그것도 두 가지나! 일상생활에서 말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다만' 등등은 역접, 즉 분위기를 전환하는 반대말의 표지판이잖아요? 찬성 측에서 개연성을 토대로 정말 효과적인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까요? 호기심을 갖고 읽어봅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으음 무슨 말일까요? 기능적 차원? 당연히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아니라면 평가원은 너무 추상적인 글을 쓰게 되어 아무 말 대잔치 필자가 될 테니까요.]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아...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이 다르니, 유비논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하겠군요. 강아지와 사람 모두 숨을 쉬고 있더라도, 그 숨을 쉬는 과정이 다르다면 실험결과를 선불리 적용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정말 똑똑한 반박이네요. 그럼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떠용? 무슨 말일까요. 유비논증을 찬성하는 측에서 기능적 유사성에 '만' 주목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둘 다 고통을 느끼는 유사성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겠지요? 차분히 읽어봅시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 동물이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1. 아, 너무 길어요. 최근 기출을 보면 평가원의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이해할 수 있는 길이만큼 호흡을 잘라서 읽어보시고, 무의식 중에 그 길이를 넓혀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군요. 전 이 문장을 읽고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반응하시며 읽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소름이 돋으셨겠죠?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호흡을 잘 끊어 읽으시면 무리 없이

'동물의 고통' 역시 '허파로 숨을 쉰다.' 와 같은 기능적 유사성인가 봐요. 신체적 능력,

즉 기능이라고 하나봅니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비 논증으로는 동물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느냐.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이 유사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왜 동물실험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외면하려 하는 것이냐.” 찬성 측이 자랑하는 유비논증을 가지고, 동물실험의 유효성을 넘어 동물의 권리까지 나아간 주장입니다.

아, 이 논쟁은 정말 예술의 경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글이 나올까요? 찬성 측에서는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 측에서의 라이트 혹은 찬성 측의 왼뺨을 다시 때릴까요? 기대하며 읽어봅시다.]

2. 또한 이 문장은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재진술 하기에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만, 우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해보려했으나, 호기심을 가지고 읽기의 태도를 체화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대응이 됩니다. (읽기의 태도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읽는 생각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의 제 칼럼을 읽어주십시오.)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이 문장을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이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 문장에 적용시켜보면,

인간과 동물 = 두 대상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린다. = 몇 가지 점에서 유사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 우리, 인간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음 알고 있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는 거죠. 항상 평가원은 추상적인 정의문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풀어가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배경지식이 없는 글을 독해할 수 있는 이유죠.

방금 어느 정도 설득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방금 우리가 감탄하지 못했을까봐 친절하게 말로 설명을 해주는군요.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평가원, 당신은 도대체...고마워요 스피드웨건! 하지만 이 문장도 조금 추상적인 거 같나요? 뒤에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최대한 이해를 해봐야죠.

첫째 비판은 ‘기능적 유사성이 아닌 인과적 메커니즘이 관건!’ 이라는 비판이었고, 둘째 비판은 ‘동물의 고통도 유비 논증으로 알아내야지 명칭이들아!’ 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떠올리며, 생각하며 글을 읽으셔야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필자가 서운해 할 겁니다. 아마 한 달 정도 감금당한 채 교수님들에게 둘러싸여 글을 썼으니가요. 정성스럽게 써주셨으니 정성스럽게 읽어드립니다.]

1. 여기서 잠시 ‘요컨대’ 라는 접속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 말은 ‘내가 앞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라고 잘난 척하며 친절하게 선언하는 접속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는 밥을 먹었다. 요컨대,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김도 팍 새고 생산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살짝 바꾸거나,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문장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으음, 읽어보니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보충 설명 같죠? 친절한 필자 씨, 위 문장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여 한 문장 더 투자해주셨네요. 있는 그대로, 거부감 없이, 으 빨리 읽고 문제나 풀고 끝내자! 라는 생각 지우시고 위의 내용과 연결하여 차분히 읽어봐요. 입체적으로 읽기, 이게 나름 핵심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실험은 안되고 동물실험은 된다는 거냐!’ 라는 말입니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라? 벌써 끝이잖아? ‘윤리성의 문제’ 란 앞에서 주구장창 말을 해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문제를 지칭하겠지요. 일관되지 않게? 아니 뭐라고? 이해가 안 가신다면 차분히 다시 생각해봅시다.

반대 측에서는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동물실험을 찬성하는 측은 “‘동물 실험이 유용하다’는 것에는 유비논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유비논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동물실험이 잔혹하다’는 주장에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며 유비논증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일관되지 않다.’ 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글을 읽으셨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표현입니다. (만약 이걸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아직 290일도 넘게 남았잖아요? 체화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걸 7월까지야 이해했거든요.)]

드디어 지문을 다 읽었군요. 곧 문제를 볼 겁니다. 이 문제 중 <보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지문 자체는 평이한 거 같아요. 그 시험마다 이 지문은 쉽다고 생각하는 지문들 있잖아요? 그런 지문이었어요. 아마 현역 분들은 이 지문의 다음 장을 넘기기까지 닥쳐올 재앙을 모르셨을 거 같긴 한데... 큼큼 아픈 기억들은 제쳐두고 문제풀이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문 9 : 문제 1 비율이니까요 히히 앞으로는 문제풀이를 다루지는 않으려 해요. 다만 사고과정의 첫 칼럼이니까 간단하게라도 다룰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단한 거는 없거든요. 그저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문제는 이 정도로 간단하다! 같은 내용입니다.)

20.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다):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20번 문제이군요. 웬만하면 무난하게 주는 문제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가볍게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서는 A를 설명했으니 다음 문단에서는 대략 B를 설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며 글을 읽으셨다면 명쾌히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침착히 풀어보세요.

가끔 이런 문제의 선지를 미리 읽고 글을 읽으시는 친구들도 보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정석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며 풀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려요. 되려 저기 선지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실전에서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 주동윤의 기우였습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21번 문제입니다. 점점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기 시작하네요. 선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①번 선지를 차분히 읽어봐요. 지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지우실 수 있죠? 동물실험에 찬성하는 측이 ‘개연성’이란 개념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명해줬습니다.

②번 선지는 마지막 문장의 ‘일관되지 않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네요. 다만 잘못된 내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유비논증’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떠한 논증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니까요. 이런 선지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를 읽으실 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서 읽어주세요. 9 대 1의 뒤편에서 1은 이러한 부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선지이군요.

③번 선지를 봅시다. ‘꼬리가 있다.’라는 예시는 개연성의 예시를 들어줄 때 지문에서 들어줬었죠? 꼬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 차이점인 특성이지만 이 점이 ‘실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되는 특성이라고 지문에서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④번 선지를 봅시다. 사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돼요.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따져보자면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을 경우, 동물 실험이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⑤번 선지입니다.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동물과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비판을 하니까요.

이렇듯 비문학의 문제 중 이러한 사실 확인 문제는 대부분 지문의 내용을 침착하게 떠올리며 풀어나가면 됩니다.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근거를 도출해내시면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이를 기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생각’하시며 근거를 떠올리시면 되요. 지문 정확하게 읽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선택지의 근거 하나하나 지문 가서 찾는 것보다 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2번 문제입니다. ㉠과 ㉡이 무엇이였을까요? 얼른 가서 찾아봅시다 호다닥호다닥 동물실험을 찬성하는 측이 ㉠, 반대하는 측이 ㉡ 이군요. 동시에 ㉠은 유비논증이 유효하다고, ㉡은 반대로 유비논증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일 겁니다.

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히 읽어주세요. 이렇게 각 측의 입장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는 보이듯이 ‘A가 B를 C라고 주장/비판한다.’ 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주어와 목적어를 칼 같이 따지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요. 이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니 의식적으로 습관을 들이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23.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 어떤 개는 ㉣ 몹시 사납고 물러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 비슷하게 생긴 ㉠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러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나
③	라	가	다
④	라	나	다
⑤	라	다	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23번 문제입니다. 고급스러운 사고과정 하얏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한 재료를 구해 봐요. ㉠는 실험동물, ㉡는 유사성, ㉢는 반응 결과라고 하네요.

지문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대상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보기> 문제입니다. 겁먹지만 않으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었다면 유비논증은 “우리는 A의 C 라는 특성을 알고 있다. / A는 특성 C 외에 B와 개연성이 높은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 B는 C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기>의 ㉡는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군요. 우리는 이 녀석이 정말 사납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특성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를 만났어요. ㉡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러한 유사점은 ㉣가 나타내는 바입니다. 요컨대,

-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 ㉡의 특성(이자 추론에 적용할 특성)=㉣
- 두 대상 간의 유사점=㉢
- 추론을 적용할 새로운, 낯선 대상=㉠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제가 한 방식의 설명은 사실 조금 대충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문을 반응하시며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기>의 상황에 침착하게 정보를 대입해본다면 저런 사고과정으로 20초 안에 푸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설명이 아무 말 대잔치 같고, 좀 벽

차셨다면 지문을 다시 소화하신 다음에 저 문제를 접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직 수험 생활 초반이니 버벅거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으로선 차분한 태도로 체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휘문제입니다. 사실 이걸 글을 많이 읽으시고, 어휘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설을 해드린다고 특별한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 유형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난하게 나오는 유형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신다면, 오답을 꼬박꼬박 챙기시면서 최대한 어휘력을 보충하시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독서량을 늘리실 생각이 없으시다면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1. 단어를 대체하여 문장을 읽었을 때 의미 상 어색함이 없는가? : 가장 간단하며 난해한 방법
2. 단어를 대체하였을 때 문장의 자리 수, 구성성분이 어색하지 않는가? : 불필요한 목적어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 했습니다. 네,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칼럼이라 문제해설까지 욕심을 내봤는데, 앞으로는 <보기> 문제와 까다로운 선지가 포함된 문제 등등 만 해설할 예정이고, 지문을 읽을 때의 사고방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13쪽은 좀 부담스러운 분량이니 간결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첫 기출분석 자료인 만큼 피드백과 비판,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룰 지문은 15수능B <신채호의 역사관> 지문입니다. 읽어보시고 치열하게 고민하신 분들, 반갑게 맞겠습니다.

29일 오전 1시 55분, 주동윤 올림.

+ ) 국어 관련 질문/고민은 댓글/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